

국민건강증진 목표와 전략

1. 기본시각

1996년 12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개최되었던 국민건강 증진 목표와 전략에 관한 공청회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신는다.

우리나라가 현대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상병이 과거처럼 열악한 위생상태가 영양결핍에서 오는 급성 감염성 질환이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 및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암, 뇌졸중, 심혈관질환, 만성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과 사고에 의한 손상으로 상병양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1994년 전체 사망건수 중 만성퇴행성질환 및 사고에 의한 사망이 72%로서 특히 70세 미만의 조기사망 중 이들 상병에 의한 사망비율이 1984년 67.8%에서 1994년에는 83.0%로 급증하였다. 이처럼 이들 상병들은 높은 치명성으로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치적 특성으로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5년에 이들 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들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대상의 예방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게 되어 경제·사회적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며,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선진국다운 건강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실시·평가에 준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와 전략이 요구된다.

현 52세의
건강수명을
2000년에는 54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오늘날 선진국
수준인 75세
이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 국민건강증진 목표

가. 기본목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장수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으며, 건강장수를 위해서는 건강하게 사는 수명 즉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현 52세의 건강수명을 2000년에는 54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오늘날 선진국 수준인 75세 이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해서는 상병이환과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며, 따라서 1995년 34.5%에 달하는 2주간 유병률을 같은 기간에 24.0%에서 26%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70세 미만의 조기사망비율을 1994년 55.4%에서 2000년에 52% 이하로 줄이고, 특히 주요 조기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 및 사고에 의한 사망비율을 1994년 83%에서 2000년에 85% 이하로 증가를 억제하도록 한다.

위의 기본적인 건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건강위험요인을 줄이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들 스스로의 건강생활실천과 예방서비스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위험요인의 감소목표로서 성인들의 금연, 절주, 적당한 수면, 운동, 적정체중 유지, 간식 안하기, 규칙적 식사 등 7가지 건강생활 실천사항 중 4가지 이상의 실천율을 1995년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40세 이상의 건강검진율을 같은기간에 38.4%에서 5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분야별 세부목표

분야별 세부목표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흡연, 운동, 식생활(영양), 음주 등 4가지 건강행위와 질병예방적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성병 및 AIDS 등의 4가지 질환과 모자보건 및 구강보건 등 모두 10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각각 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건강수준 목표로서 주요 사망원인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암 사망률을 1994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114.5명에서 2000년에 137.6명 이하로 증가를 억제하고, 특히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폐암의 사망률을 같은 기간에 19.1명에서 26.7명 이하로 줄이며 허혈성 심질환의 사망률을 12.8명에서 20.0명 이하로, 만성질환 및 간경변증의 사망률을 17.2명에서 20명 이하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보건지표의 하나로서 평균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을 1991년 출생 1000명당 9.6명에서 2000년에 오늘날의 선진국 수준인 9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건강목표달성을 위한 건강위험요인 감소목표로서 20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을 1995년 35.1%에서 2000년에 30% 이하로 줄이고, 특히 청소년 흡연 감소목표로서 고등학교 3학년생 (18세에 해당함)의 흡연율을 같은기간에 21.1%에서 15% 이하로 줄인다.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목표로서 총열량 섭취량중 지방의 섭취비율을 1993년 18.2%에서 20% 이하로 억제하고, 성인들의 1인당 1일 소금 섭취량을 현재 25g에서 10g 이하로 줄이며, 신생아와 6개월 영아의 모유 수유율을 1994년 55.6%와 28.8%에서 각각 75%와 50% 이상으로 높인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요요소의 하나인 체육활동의 목표로서 15세 이상 인구의 주 3회 이상 운동실시율을 1994년 28.6%에서 2000년에 40% 이상으로 높이고, 특히 여가시간 중 운동실시율을 같은 기간에 13.4%에서 20% 이상으로 높인다.

또한 음주로 인한 건강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15세 이상 성인의 매일 음주율을 1995년 6.6%에서 5% 이하로 줄이고, 남자의 심각한 알코올의존율을 1995년 4.3%에서 3% 이하로 줄인다. 그리고 성병 및 AIDS예방을 위하여 성병 및 AIDS예방 가능인식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배우자 이외의 상대자와 성행위시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토록 하며, 충치예방을 위하여 불화된 수돗물을 음용하는 인구를 1995년

주요 사망원인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암사망률을 1994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114.5명에서 2000년에 137.6명 이하로 증가를 억제하고자 한다.

.....

주요 정책토론 : 국민건강증진 목표와 전략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한
국민보건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범국민적인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에
보건교육개발센터
를 설치한다.

1.5%에서 2000년에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 처치율을 20% 이상으로 높인다.

모자보건의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과 제왕절개분만의 감소목표로서 부인의 총 임신중 인공임신중절 비율을 1995년 39.0%에서 10% 이하로 줄이고 제왕절개 분만율을 1994년 31.5%에서 2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3. 추진전략

국민건강증진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전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유도를 위한 국민보건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범국민적인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에 보건교육개발센터를 설치하여 TV 및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홍보물의 제작·보급, 사업담당인력 교육훈련, 연구개발 등을 통한 일선의 건강증진사업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보건기관, 단체 및 직장 등의 교육홍보사업을 활성화한다.

둘째, 주요 만성질환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소등 관련보건의료 조직을 통한 예방사업활동을 활성화한다. 주요 사망요인이 되는 암, 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간질환 등을 국가관리의 특별관리질환으로 지정하고, 보건소,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예방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련단체 및 학교·사업장 등의 예방보건활동을 활성화한다.

셋째,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여건조성으로서 건강증진시설 확충과 건강 위해적 환경요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담배자판기 설치 규제, 미성년자 대상의 담배·술 판매 금지, 담배·술 광고 규제, 유해식품의 생산유통 규제 등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동시설, 체육공원, 레저시설, 위생안전시설 등의 건강증진시설을 확충토록 하며, 수돗물의 불소화사업을 확대 실시토록 한다.